

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 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 <b>서구·검단구</b>		<h1>보 도 자 료</h1>		<i>이제는 인천입니다</i> <b>2025 APEC INCHEON</b>	
배포일자		2024년 6월 20일(목) 총 2매			
담당 부서	디아스포라 유산과	담당자	• 디아스포라유산담당 • 담당자	정지연 ☎440-1561 김희현 ☎440-1563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**인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본격운영 ... 지역 정착 지원**  
**- 무료의료지원 서비스 및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방문상담 추진 -**

인천시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의료지원 서비스는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인천의료원 및 인천근로자건강센터가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사업으로, 외국인근로자에게 혈당·혈압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, 우울증 검사 및 상담을 통하여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무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
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는 섬지역이나 소래포구, 연안부두, 화수부두 등에서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사업으로, 근로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한편, 인천시에는 현재 19,8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, 건설업,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.

시는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에서 5월말까지 종합상담 2,938명, 한국어 및 컴퓨터교육 1,630명, 생활법률, 산업안전교육 100여 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.

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“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인천시 유관기관 및 사업주와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

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남동구 호구포로 220, 명진프라자 11~12층에 위치했으며, 운영시간은 일요일~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, 금·토요일은 휴무이며 대표 전화번호는 032-231-4545 이다.

※ 브리핑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<https://tv.incheon.go.kr>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